

January

2014년 12월 25일

통권 제234호



성남시
www.seongnam.go.kr

1

2015년

월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201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공공부문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성남시 공식 SNS

트위터 twitter.com/seongnamcity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ongnamdiary
블로그 www.seongnamdiary.com
홈페이지 www.snvision.seongnam.go.kr

발행처 성남시 편집처 공보관 주소 462-700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콜센터 1577-3100 우편번호 신청 031-729-2078, 2076~6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구글 'Play 스토어'에서 '비전성남'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면 됩니다.

성남시장실은 시민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상탑초등학교 어린이들이 12월 16일 2층 시장실을 방문해
집무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났다.

〈관련 기사 12면〉



생태도시 성남

오리 이야기

요즘 탄천하류에선 멀리에서 찾아온 반 가문 비오리, 고방오리, 넓적부리오리 등 이 텃새가 된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들과 무리를 지어 지내는 모습이 발견된다. 오리는 곁에 있는 털 속의 두꺼운 솜털이 살에 달지 않도록 보호하는 까닭에 체온이 떨어지지 않고 부리로 틈틈이 기름샘에서 기름을 짹여 깃털에 묻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고 한다. 더구나 오리발은 느끼는 신경이 없고 피도 흐르지 않아서 찬물에 오래 있어도 차가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사람이라면 발이 시려 잠깐이라도 머물기 어려운 이 추운겨울 물 속에서 오리는 자유롭게 수영을 즐기는 것이다.

옛 문헌에 따르면 오리는 우리말로 오리·올이·올히로 불렸으며, 한자로 압(鴨)이라 했다. 백두산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압록강이다. 세조 때 비상한 정치 수완을 휘두른 상당부원군 한명회(韓明渾, 1415~1487)는 정자를 짓고 이름을 '압구정'이라고 했다. 또한 천년의 고

도 경주에는 신라의 역사를 품고 있는 연못 '안압지'가 있다. 오리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친근한 존재였음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오리는 물이 있는 곳에 터전을 잡는 물새로 논에서 해충을 잡아먹으며 살아 고마운 생명체였던 까닭에 농사를 짓는 민족에게 매우 친숙하면서 특별한 새였던 것 이 이상하지 않다.

삼한시대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오리 모양 토키는 특수용기로써 사람들 속에 퍼져 있던 새에 대한 신앙이 표현된 유물이다. 특히 오리는 물새로 청결하고 인간이 넘나들 수 없는 강이나 바다의 물을 건너 세계를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신성한 동물로 여기며 영혼의 전달자로 상징됐다. 오리는 이후 연못과 함께 그려져 행운을 상징하기도 했다.

이런 생각은 예술에도 깃들어 오리는 많은 유물에 등장하는데 오리 두 마리와 벼드나무를 그린 이갑이류도가 대표적인 예다. 오리를 뜻하는 한자 압(鴨)을 풀어



탄천 하류의 비오리와 청둥오리 (사진제공: 생태동화작가 권오준)

쓰면 갑(甲, 으뜸)자와 조(鳥, 새)자가 된다. 과거시험에서 으뜸은 장원급제를 뜻하는데 조선시대의 과거는 1차와 2차 시험을 치른 후 두 차례 합격한 사람들만 모아 임금 앞에서 치르는 3차 시험인 전시를 봤다. 3차를 모두 합격해야 벼슬아치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연달아 합격하는 기원을, 오리와 벼드나무를 그린 '이갑이류도'에 담아 표현한 것이다. 또한 그림 속에 등장하는 오리는 날아가 든 헤엄을 치든 같은 방향으로 그려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계속 나아감' '목표를 향한 정진'의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고려시대 청자연적 중엔 입에 연밥을 물고 있는 오리 모습이 있는데 연이어 과거에

합격한 뒤 귀한 자식을 얻으라는 뜻을 품고 있다. 고려시대 과거제도가 시작됐으니 자연히 과거급제를 비는 상징물로 오리가 인기를 끌었고 벼루에 먹을 갈 때 조금씩 물을 따를 수 있도록 사용한 그릇인 연적을 오리모양으로 만들어 선비들은 늘 연적을 보며 굳센 마음으로 공부했을 것이다.

2015년 을미년엔 모두들 각자 목표를 가지고 정진하는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할 것이다. 새해 각자의 결심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주 탄천을 산책하며 만나는 오리에게 부탁해 보면 어떨지… 성남시민 모두 2015년 새해에 건승하길 기원해 본다.

김기숙 기자 tokiwife@naver.com

소비자 Q & A

예식장 계약 후 취소할 때 위약금은 얼마일까?

Q 2015년 3월 6일 결혼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식사비와 예식장 이용료 등 총 2,900만 원에 호텔 예식장을 계약 후 계약금으로 250만 원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2014년 12월 15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했더니 예식장에서는 10%의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위약금 규정이 궁금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예식장 계약 취소 시 이용예정일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위약금기준이 다릅니다. 소비자의 경우 계약취소일 현재 이용예정일이 81일 남은 상태입니다. 기준에 따르면 60~89일 사이에 해당돼 위약금이 총 비용의 10%가 맞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금 250만 원을 포함해 총 29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참고로 예식일이 취소시점에서 30~59일 남았다면 총 비용의 20%, 30일 미만이면 35%의 위약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예정일이 90일 이상 남은 경우나 대체 계약이 발생했다면 업체는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급은 물론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국번없이 1372

카피라이터 정철의 역발상 ④

아이의 귀를
후벼
보세요



면봉으로 내 아이의 귀를 후벼 보세요. 솜에 묻어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 보세요. 공부해! 1등 해! 넌 도대체 누굴 닮았니? 답답한 놈! 이런 소리가 잔뜩 묻어나온다면 당장 의사 tokiwife@naver.com 찾으세요. 아이의 귀를 치료해 줄 의사가 아니라 당신의 입을 치료해 줄 의사입니다. 거친 소리를 가득 담고 있으면 아이의 귀는 너무 작고 여리답니다. 아이에게 화내지 마세요. 아이를 힘들게 하는 당신의 욕심에게 화를 내세요.

정철 카피라이터

절반은 카피라이터 절반은 작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30년 가까이 광고 카피를 써오고 있으며 지금은 '정철카피' 대표로 있다. 저은 책으로는 〈한글자〉 〈내 머리 사용법〉 〈불법사전〉 〈머리를 9하라〉 〈인생의 목적어〉 등이 있다.

